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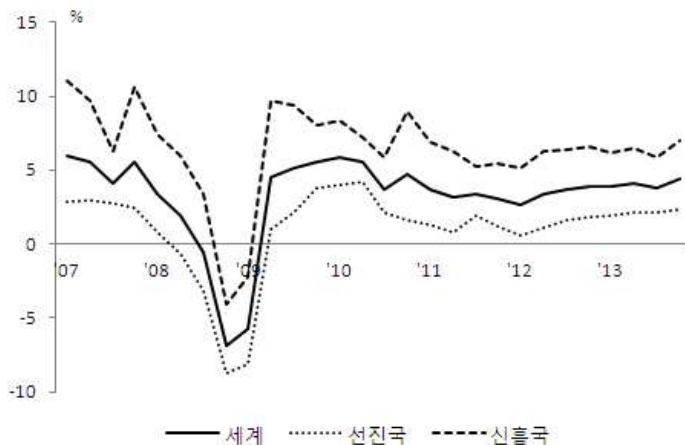
IMF,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2012~1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012년 1월 24일 발표함.
 - IMF는 세계경제전망(WEO)보고서에서 2012~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.3%, 3.9%로 전망함.
 - 금번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1년 9월(4.0%)보다 0.7%p, 2011년 6월(4.5%)보다 1.2%p 낮아짐.
 -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011년 9월(4.5%)보다 0.6%p 낮아짐.
 - IMF는 2011년 3/4분기 개선 조짐을 보였던 선진국 경제가 4/4분기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다시 주춤하였고, 신흥국도 긴축정책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세계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연되었다고 진단함.
 - 유로존의 재정·은행 유동성 리스크 심화로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2013년 세계경제 및 유로존 성장률은 각각 2%p, 4%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.
- 선진국의 2012~13년 경제성장률은 종전보다 각각 0.7%p, 0.5%p 하락한 1.2%, 1.9%로 전망됨.
 - 미국의 경우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.8%로 종전(2011년 9월)과 같았으나 2013년 전망치는 2.2%로 0.3%p 하향 조정됨.
 -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2년 0.5%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종전보다 1.6%p 낮아졌으며, 2013년에는 종전보다 0.7%p 낮은 0.8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 - 일본의 2012~13년 경제성장률은 종전보다 각각 0.6%p, 0.4%p 낮은 1.7%, 1.6%로 전망됨.
- 신흥국의 2012~13년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남미국가의 성장세 둔화로 종전보다 각각 0.7%p, 0.6%p 낮은 5.4%, 5.9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중국의 2012~13년 경제성장률은 종전(2011년 9월)보다 각각 0.8%p, 0.7%p 낮은 8.2%, 8.8%로 전망됨.
- 브라질의 경우 2012년 경제성장률은 3.0%로 종전보다 0.6%p 낮아졌으며, 2013년 전망치는 4.0%로 0.2%p 하향 조정됨.

〈그림 1〉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

자료: IMF(2012, 1),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.

- 또한, IMF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 실패 가능성, 미국 대선,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, 원유공급 차질 가능성도 세계경제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함.
- 미국과 일본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이탈로 채권 및 외환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함.
- 또한, 대선 공약으로 인한 미국의 과잉건축, 주요 신흥국의 경착륙,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원유공급 차질 등은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언급함.

(IMF, 1/24)